

『李元鎮_耽羅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김새미오*

- | | |
|------------------------|---------------------|
| I. 들어가며 | IV. 『이원진_탐라지』의 제 판본 |
| II. 『이원진_탐라지』 이전의 지리지 | V. 나오며 |
| III. 『이원진_탐라지』의 구성과 의미 | |

• 국문초록

본고는 『이원진_탐라지』의 형성과정과 여러 판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한 글이다. 『이원진_탐라지』 이전의 지리지로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원진_탐라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전의 관찬지리지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다.

형식면에서 『이원진_탐라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면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훨씬 풍부하고 세밀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실제적인 조사과정과 실증적인 그의 저술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제주지식인이었던 고흥진의 교감을 거쳐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당시의 기준문헌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이원진_탐라지』는 목판으로 만들어졌다. 초판본은 화재에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박장복 목사 때에 重刊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瀛州抱橘歌」가 있는 『이원진_탐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목판본 『이원진_탐라지』를 통해 본토에는 제주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전달되었다. 제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이원진_탐라지』를 적은 필사본과 『탐라지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면에는 『이원진_탐라지』가 제주의 기준문헌으로 자리한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원진_탐라지』는 기존의 것을 수용하고, 동시에 실증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당시의 기준문헌이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목판에 새겨 인쇄하여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후대에 나오는 제주에 관한 모든 정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이원진, 지리지

I. 들어가며

본고는 『李元鎮_耽羅誌』¹⁾를 중심으로 그 변화사항을 정리하고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耽羅誌』는 제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지리서이다. 『탐라지』는 효종 때에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진이 처음 작성하였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탐라지』가 나타난다. 『탐라지』는 제주학 연구의 가장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원진_탐라지』는 제주학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책이며, 기본적으로 私撰 지리서로 분류된다. 1975년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耽羅文獻集』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미상의 『瀛洲誌』·冲菴 金淨의 『濟州風土錄』·淸陰 金尙憲의 『南槎錄』·太湖 李元鎮의 『耽羅誌』·心齋 金錫翼의 『耽羅紀年』을 번역·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서적들은 그야말로 지금도 제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헌이다.²⁾

이 번역을 기초로 2002년에 金榮洽 등이 중심이 되어 『이원진_탐라지』가 다시 번역되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고창석이 해제를 썼는데, 이것이 『이원진_탐라지』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다. 해제에서 고창석은 “지지편찬의 경향-이원진의 생애와 사상-제주목사로서의 치적-『탐라지』편찬경위”의 항목으로 살폈다. 고창석은 『이원진_탐라지』에 대해서 제주도의 가장 오래된 읍지로서 제주도에 관한 문헌들의 저본이 되고, 사찬읍지로의 전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³⁾ 이 글은 『이원진_탐라지』의 해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그의 평가도 정확하다. 하지만 『이원진_탐라지』 이전에 있었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增補新增東國輿地勝覽』에 대한 언급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원진_탐라지』에 대한 판본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목적이다.

한편 이원진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있는데, 문집에 관련한 사항⁴⁾과 그의 시를

- 1) 『탐라지』는 여러 저자와 판본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저자_탐라지』 또는 『서지형태_탐라지』의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 2) 『耽羅文獻集』, 김계연 외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3) 『耽羅誌』, 김찬흡 외 역, 푸른역사, 2002.
- 4) 김남형, 「驪江世稿」研究 I-문헌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2, 한국학연구원, 2011, 317~338면; 김영진, 「새 발굴 驪州李氏 先世 문집·저술 고찰(1)-〈太湖詩稿〉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36, 온지학회, 2013, 129~166면.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었다.⁵⁾ 그의 문집인 『太湖文集』도 학계에 소개되고 번역되었다.⁶⁾ 이원진은 제주에서의 경험을 모아 「耽羅錄」이라 이름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원진이 제주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읍지와 사찬지리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다.⁷⁾ 하지만 『이원진_탐라지』에 주목하여 분석한 글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차적으로 제주의 출판문화에 대해서는 남권희, 김우리, 박철상, 윤봉택의 연구가 참조된다.⁸⁾

기존연구의 한계점은 『이원진_탐라지』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범위를 『이원진_탐라지』로 한정하여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원진_탐라지』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원진_탐라지』 이후에도 많은 『탐라지』가 확인된다. 이들 『탐라지』는 『이원진_탐라지』의 수용과 반발의 관계가 있고,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분화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이원진_탐라지』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후의 양상은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진_탐라지』 이전의 지리지를 정리하여, 『이원진_탐라지』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원진_탐라지』가 제주에 관한 오랜 시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이원진_탐라지』의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원진_탐라지』의 가치를 분명하

- 5) 김효정, 「太湖 李元鎮의 詩世界 考察」, 『한국민족문화』 7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97~124면; 윤재환, 「新資料 『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鎮의 詩世界-資料 소개와 詩世界的 概略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391~428면; 윤재환,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의 形象化-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鎮·梅山 李夏鎮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197~232면.
- 6) 이원진,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태호이원진의 태호시고』,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11, 2013.
- 7) 사찬읍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참고문헌에 병기하였다.
- 8)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34, 한국서지학회, 2006, 251~271면;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역사문화학회, 2020, 157~190면;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8,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판 『황석공소서』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265~274면; 박철상, 「제주판 『삼국지연의』 간년 고증」, 『포럼 그림과 책 2011 논문집 (1)』, 화봉문고, 2011; 윤봉택·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서지학연구』 34, 서지학회, 2006, 251~271면;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2; 김민현,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의 서지학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4(제4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33~53면.

게 정리할 것이다. 셋째, 『이원진_탐라지』의 여러 판본을 정리할 것이다. 제주에 대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조선후기인데, 그 정보의 중심에 『이원진_탐라지』의 판각이 있다. 또한 『이원진_탐라지』 계열의 필사본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이원진_탐라지』의 여러 판본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규명해보겠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다. 먼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이원진_탐라지』 작성 이전에 제주에 관련해서 어떤 문헌이 있었는가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는 『이원진_탐라지』의 형성과정을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원진_탐라지』 내용과 구성을 정리하겠다. 이를 정리하는 이유는 『이원진_탐라지』의 가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에 나오는 여러 『탐라지』와의 차별성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진_탐라지』와 이를 따르는 제 판본을 정리할 것이다. 논의에 있어 濟州牧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旌義縣과 大靜縣은 부차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는 『탐라지』 대부분의 기록이 제주목을 중심으로 기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반과정을 통해 『이원진_탐라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I. 『이원진_탐라지』 이전의 지리지

『탐라지』라는 언급은 중국문헌에서 먼저 나온다. 다음은 원나라 貝瓊이 지은 「耽羅志略後序」의 일부이다.

탐라는 중국과 만 리 떨어져 있다. 역사서에는 확인되지 않으니, 거칠고 먼 지방이어서 생략한 것이다. 至正25년, 樞密院椽인 曹永嘉와 李至剛이 副樞인 帖木兒不花公을 따라 탐라를 다스렸다. 다음해 황제의 명으로 京師로 돌아왔다. 至剛이 병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松江에 머물렀고, 인하여 자신이 살펴본 山川·形勢·民風·土產을 기록하고 편집하여 3권으로 정리하고 『耽羅志略』이라고 하였다.⁹⁾

9) 貝瓊, 『雲間集』 권7, 「耽羅志略後序」, “耽羅距中國萬里, 而不載於史, 蓋以荒遠略之也. 至正二十五

서문을 지은 貝瓊(1314~1379)은 원말명초 시기의 인물이다. 李至剛이 머물렀던 松江은 중국의 寧波 부근이다. 이 곳은 당시 중국과 고려를 오가는 주요기점이었다. 李至剛이 저술했다는 『耽羅志略』은 전하지 않는다. 그저 문헌상의 이름으로 전해질 뿐이다. 하지만 탐라에 관한 山川·形勢·民風·土産을 기록했다는 것은 탐라에 대한 원나라의 관심을 의미한다. 원나라의 관심은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탐라를 통치하거나 군사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高麗史_地理志』의 「耽羅縣」에서 확인된다.¹⁰⁾

〈표 1〉 『고려사_지리지』의 탐라현

	구성	출전
탐라현	三姓神話-沿革-漢拏山-벧길	州의 「古記」

『고려사_지리지』에서는 항목별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삼성신화와 高厚·高淸의 본토진출”, “고려 때의 건치연혁”, “형승으로 한라산과 추자도”, “읍명과 바닷길”이 그것이다. 분량 상으로는 “삼성신화”와 “고려 때의 건치연혁”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핵심내용이다. 문헌 근거로는 “州의 「古記」”가 확인되는데, 삼성신화를 기록할 때 사용되었다. 『고려사』에서 「古記」는 주로 『삼국사기』의 것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 기록에서 나오는 “州의 「古記」”은 삼성신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전해져온 기록을 말한다. 『고려사_지리지』의 내용은 조선정부가 전 왕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치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주 지리서로서의 실제 내용이 처음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실제 위의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선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관찬지리지가 작성된다. 대표적인 것이 『世宗實錄地理志』·『東國輿地勝覽』·『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주지하듯 『세종실록지리지』는 현전하는 最古의 전국 지리지이다. 이 책에서는 각 현에 대해 官員·沿革·鎮山·別號·屬縣·鄉所·山川·戶口·軍丁·姓氏·人物·風氣·土貢·藥材·磁器所·

年, 樞密院椽曹永嘉李至剛, 從副樞帖木兒不花公, 往守其地, 明年, 奉詔還京師. 至剛以病不得俱, 適留松江, 因記所歷山川形勢民風土産, 編而成集, 釐爲三卷, 題曰, 耽羅志略.”

10) 『고려사_지리지』에는 항목이 따로 없다. 표에 제시된 항목은 필자의 판단에 따라 명명한 것이다.

陶器所·城郭·驛 등의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은 이후에 출현한 지리지의 기초가 된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¹¹⁾

〈표 2〉 『세종실록지리지』_제주

	구성	출전
제주목	官職體系-三姓神話-沿革-漢拏山-戶數-姓氏-産物-邑城-烽火-牧場-靈異(火山, 廣壤王)	州의 「古記」 『三國遺事』
정의현	官職體系-境界-産物-牧場-烽火	
대정현	官職體系-境界-産物-牧場-烽火	

먼저 위의 표에서 구성항목은 필자가 내용에 맞추어 이름을 붙였다. 연혁은 조선 태종 때에 “左都知管과 右都知管”으로 나누었던 사실까지 기록하였다. 성씨는 토성인 高·梁·夫만을 소개하였고, 제주의 인물은 高兆基 뿐이다. 신기한 사적으로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고려 목종 때 있었던 화산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종단 설화에 기초한 광양왕에 관련한 이야기이다. 토산물, 목장 및 방어시설은 제주·정의·대정 모두 공통으로 기록하였다.

제주목의 기록은 “행정·물산·목장·방어시설”이 그 중심이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이 제주를 변방으로 인식하고, 통치하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세종실록』에서 제주관련 항목은 행정체제와 방어시설의 정비 및 목장에 관련한 기록이 적지 않다. 제주목의 기록이 소략해보여도 정의현과 대정현의 기록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이는 제주에 관해서는 제주목이 그 중심임을 말해준다. 한편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구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부분의 연혁은 삼성신화와 고려시대를 통괄하는 연혁부분인데, 삼성신화가 그 중심이다. 문헌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州의 「古記」”이다. 이는 『고려사_지리지』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이를 통해 『고려사_지리지』의 제주부분이 기초가 되어 『세종실록지리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정의현과 대정현이 따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이후의 제주지리지의 행정단위는

11)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항목이 따로 없다. 표에 제시된 항목은 필자의 판단에 따라 명명한 것이다.

당연히 이를 따른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기록은 물산과 방어시설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조선 건국 후 지방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심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성종 때에는 『동국여지승람』이 발행되었고, 중종 때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 조선의 모든 지역이 백과사전의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고, 내용 역시 풍부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제주에 관련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신증동국여지승람』_제주

	구성	출전
제주목	建置沿革-官員-郡名-姓氏-風俗-形勝-山川-土山-城郭-關防-烽燧-宮室-樓亭-學校-橋梁-佛宇-祠廟-古蹟-名宦-人物-孝子-題詠	『高麗史』 『古記』_삼성신화 『三國遺事』 『東文鑑』
정의현	建置沿革-官員-姓氏-風俗-土山-山川-城郭-關防-烽燧-樓亭-學校-橋梁-佛宇-祠廟-古蹟-烈女	
대정현	建置沿革-官員-姓氏-風俗-土山-山川-城郭-關防-烽燧-樓亭-學校-橋梁-佛宇-祠廟-古蹟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형식이다. 내용의 증보된 것은 있지만, 항목으로 더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전의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大明一統志』의 영향도 있지만,¹²⁾ 조선의 것을 스스로 정리하려던 의지 또한 무시 못할 사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형식은 『동국여지승람』의 것과 거의 같고, 이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다시 구현된다. 그리고 이 형식은 이후에 나오는 『탐라지』에서도 확인된다.

내용에 있어서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진다. 제주목 건치연혁에 있어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삼성신화가 중심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삼국 시대의 여러 사건, 고려시대의 행정체제의 변화까지 자세히 서술하였다. 기록은 조선 세조대까지 이어진다. 성씨에 있어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토성인 高·梁·夫만을 기록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원나라의 성씨까지도 수록하였다. 인물에

12) 안장리,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都八景』과 『大明一統志』의 『京師八景』 비교』, 『역사민속학』 3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161~196면.

있어도 高維를 비롯하여 高兆基·高得宗·高台彌까지 기술하였고, 신증의 항목으로 효자 항목으로 金杯를 추가하였다. 효자의 항목은 유가이념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풍속의 항목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풍속이 미욱하고 검소하다”라는 항목 뿐이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백성의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며 예절이 있다”, “사투리가 난삽하다”, “발머리에 무덤을 만든다”, “淫祀를 숭상한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일기가 항상 따뜻하다”, “그물을 쓰지 않는다”, “풍속이 별나고 군사는 사납고 백성은 어리석다”,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 “돌을 모아서 담을 쌓았다”,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다”, “풍속이 소주를 많이 쓴다”의 항목으로 확장된다.¹³⁾ 제주풍속에 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은 『이원진_탐라지』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이 밖에도 “산천·궁실·누정·학교·교량·불우·사묘·고적·명환·제영”의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새로 추가되었고,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항목은 그대로 『이원진_탐라지』로 이어지고, 그 내용은 훨씬 풍부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내용에 있어서 방대한 양이 추가되었지만, 출전에 있어서는 『세종실록지리지』과 큰 차이가 없다. 추가된 서적은 『高麗史』·『東文鑑』 밖에 없다. 그렇지만 제주와 관련한 단편적인 작품들을 그 근거로 사용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되기 전에 제주에 관련한 문헌으로는 冲庵 金淨의 「濟州風土錄」이 있다. 하지만 『충암집』은 명종 때 초간되었고, 인조 때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충암의 「제주풍토록」은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매우 주요 인용서목으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된 후 『이원진_탐라지』 사이에 확인되는 문헌으로는 白湖 林悌의 『南溟小乘』,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이 있고, 단편적인 기록으로는 「許穆_耽羅誌」가 있다. 허목의 기록은 단편적이고 『이원진_탐라지』의 발간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제와 김상헌인 경우 『이원진_탐라지』에서 이름은 확인되지만, 『남명소승』과 『남사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

13) 제주풍속에 관련해서는 마치다타카시의 연구 참조. 마치다타카시, 「〈민속〉과 〈폐습〉 사이-제주도의 폐습론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마치다타카시,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역사민속학』 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55-87면.

단락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원진_탐라지』 이전의 제주관련 지리지는 기본적으로 관찬지리서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자체가 큰 바다를 건너야하기 때문에 이를 행정력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선정부의 노력이며, 동시에 제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뜻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이 그대로 『이원진_탐라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해야할 사실이다.

Ⅲ. 『이원진_탐라지』의 구성과 의미

제주목사 이원진에 대해 『담수계_증보탐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효종 2년(1651) 7월에 도입하고 그 후 2년이 지나서 계사년 10월에 교체되자 떠났다. 군사 무기를 잘 수선하였으니, 洗兵軒이라고 하던 곳이다. 임진년 8월에 큰 비·바람으로 남북 水口 虹門이 스스로 무너졌다. 겨울에 북구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봄에 이르러 준공하고, 북수구 위에 拱辰亭을 건립하였다. 계사년(1653) 가을에 『耽羅志』를 완성하였다.¹⁴⁾

이원진은 본관은 驪州, 자는 昇卿, 호는 太湖이다. 효종 2년 7월 金壽翼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였다. 위의 사항에는 없지만, 제주목사 재임 시절 하멜 표류사건이 있었고, 대정향교의 이건도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 치적 중에 『이원진_탐라지』가 들어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먼저 『이원진_탐라지』의 전체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淡水契_增補耽羅誌』, 「濟州觀風案」.

〈표 4〉 『이원진_탐라지』의 구성

지역	구 성
濟州	建置沿革-鎭管-官員-邑名-姓氏-風俗-形勝-山川-橋梁-土產-田結-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跡-名宦-人物-孝子-烈女-題詠
旌義縣	建置沿革-官員-山川-橋梁-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奴婢-果園-牧養-貢獻-古跡-名宦-烈女
大靜縣	建置沿革-官員-姓氏·風俗·土產-山川-橋梁-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奴婢-果園-牧養-貢獻-古跡

『이원진_탐라지』의 구성은 다른 지역의 지리지와도 유사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탐라지』의 전형으로 자리한다. 『이원진_탐라지』의 구성만으로 볼 때, 제주목에만 있는 항목은 “鎭管-邑名-形勝-土產-田結-工匠-醫藥-人物-孝子-題詠”이다. 형식적으로 정의현·대정현을 구분했지만, 실제 분량과 내용은 제주목이 그 중심이다.

『이원진_탐라지』의 발간에 대해서는 申纘(1613~?)의 발문이 전한다.

지금 李太湖 漁隱公이 고을을 다스린 이래 민간의 풍습을 고찰하고 세속의 인정을 살폈는데, 지도와 호적의 황당무계함을 개탄하고 고을 백성들의 몽매함에 근심하였다. 이에 『東國輿地勝覽』을 살펴 그 지나간 자취를 살피고 연구하였다. 또 本紀에서 누락된 것을 채집하고 서술하여 한편의 책을 만들었고, 沖庵의 『風土錄』에서 그 중요한 것을 추려내었다.¹⁵⁾

발문을 쓴 신찬은 효종 2년(1651)에 제주향교 교수직에 임명되어 제주에 왔던 인물이다. 신찬은 위의 발문 외에도 「新鄕校移建記」·「運籌堂記」·「洗兵軒記」·「拱辰亭記」 등의 글이 있다. 「新鄕校移建記」에는 이원진의 명으로 썼다고 되어 있다. 洗兵軒·拱辰亭 모두 이원진 목사시절에 개축된 것이다. 『태호시고』에도 「和申教授纘詠水車詩」가 있다. 모두 이원진과 신찬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5) 『李元鎮_耽羅誌』, “今者, 李太湖漁隱公刺州以來, 考民風, 察俗情, 概圖籍之無稽, 愍鄉氓之懵識. 於是, 取『輿地勝覽』, 究其往蹟. 又采本紀之闕遺者, 述爲一編之書, 而沖庵『風土』之錄, 撮其要者.”

인용문에는 중요한 기술이 있다. 제주에 대해 전해지는 기록들이 근거가 없어 『耽羅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과 그 기본문헌은 『東國輿地勝覽』과 『風土錄』이라는 것이다.

성종 때의 『동국여지승람』, 중종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효종 때까지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몇 가지가 있다. 冲庵 金淨의 『濟州風土錄』, 白湖 林悌의 『南溟小乘』,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이 그것이다. 기타 유배인의 시문집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이원진_탐라지』에서 『제주풍토록』은 3차례, 청음 김상헌은 3차례, 백호 임제에 대해서는 1차례 언급된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먼저 세 문헌이 있음에도 『제주풍토록』만을 언급한 이유이다. 이는 이원진이 볼 수 있었던 책의 범위로 생각된다. 『이원진_탐라지』가 만들어질 당시 『충암집』과 『백호집』은 이미 발간된 상태였다. 『충암집』은 1552년에 초간본이 발간되었다. 또 충암은 1578년에 濟州 楸林書院에 향사되었다. 충암을 굴림서원에 모시고 있었기에, 『충암집』이 제주에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백호집』이나 『남명소승』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당시 이원진 목사는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원진_탐라지』의 영향관계에서 볼 때, 주목해야할 책은 『남명소승』과 『남사록』이다. 『이원진_탐라지』에 임제의 글은 「冲庵廟記」 뿐이고, 『남명소승』은 문헌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 임제가 지은 글 중에 제주열녀 「天德傳」은 유교적 이념을 앞세운 글이어서 실린 만도 하지만 없다. 그저 天德이 있다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冲庵廟記」인 경우는 충암묘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을 직접 필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林悌가 죄를 받고 賜死되어 문집발간 자체가 늦었던 이유도 있고, 목사로서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원진_탐라지』에서 청음은 3차례 언급된다. 「朝天館 次板上韻」·「觀德亭 次板上韻」과 還上 탕감에 관한 조치이다. 『이원진_탐라지』는 청음이 세상을 떠난 다음해에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원진은 『남사록』을 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록된 청음의 시는 조천관과 관덕정에 관각된 시를 직접 筆寫했고, 還上 탕감 조치는 관아에 남아있었던 문서로 추정된다.

『남명소승』과 『남사록』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원진_탐라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요문헌 근거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숙종 때 어사로 온 李增의 『南槎日錄』, 李衡祥 목사의 『南畝博物』은 물론, 영조 대에 정리된 『윤시동_증보탐라지』인 경우도 『남명

소승』과 『남사록』이 주요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명소승』과 『남사록』은 『이원진_탐라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원진_탐라지』의 특징과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진_탐라지』의 구조는 대체로 『세종실록지리지』보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연혁」과 「관원」 등은 지나온 기간 동안의 변화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런 형식은 이후에 발간되는 『탐라지』의 기본적인 전형으로 자리한다.

둘째, 건치연혁은 ‘삼을라~예종’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원진이 효종 대에 부임했는데, ‘예종~인조’에 이르는 시기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역시 『이원진_탐라지』와 다른 『탐라지』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이다.

셋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해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세금과 관련된 「전결」 등은 모두 다시 정리되었고, 방어시설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題詠」의 항목은 많은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원진_탐라지』에는 金緻, 李慶億, 郭期壽, 金尙憲, 趙誠立, 李民成, 鄭堃, 睦長欽, 沈演, 金泰廷, 鄭繼趾, 李希雍 등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이원진 자신의 작품도 많은 양을 수록하였다. 특히 건물이나 방호소 등에 남긴 시들은 후대 문인들의 즐겨 차운하였다.

『이원진_탐라지』는 저술태도에 있어서 매우 실증적이다. 『이원진_탐라지』에서 소개된 시문들 중에는 개인문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주건물의 현판에 적혀있던 시를 직접 확인하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제주풍속에서 소개되는 「人多壽考」의 항목에서는 “지금 생각하건대, 제주는 비록 더운 지방이라고 하나, 한라산 북쪽에 위치하여 남대양의 악한 기운은 산으로 막히고, 대풍이 많다고는 하나 북쪽에서 오는 차고 시원한 기운은 습한 열기를 몰아 흩어지게 하므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산 남쪽은 산 북쪽보다 못하다.”¹⁶⁾라는 주석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기록에는 「人多壽考」의 항목에서 老人屋을 언급한다. 이원진인 경우는 장수의 이유를 나름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원진의 집필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16) 『李元鎮_耽羅誌』, 「風俗」, “今按, 本州雖曰炎洲, 處于漢拏之陰, 南大洋瘴氣, 則山以隔之. 雖多大風北來, 寒涼之氣, 亦足以驅散濕熱, 所以人多壽考, 而山南不及山北也.”

이원진은 제주에 대한 기록을 위해 남겼다고 했지만, 저술 배경에 있어 좀 더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첫째, 서양세력이 동진이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주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원진 목사 시기에 하멜표류라는 대형사건이 있었고, 이전에도 벨테브레(한국명 차延)의 표류가 있었다. 표류사건은 이후의 『탐라지』는 물론 개인 저작에서도 매우 관심있게 기록되고 있다.

둘째, 제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제주유배형은 거의 죽음에 가까웠다. 金淨이 『제주풍토록』을 남겼다고 하지만, 그 역시 살아서 제주를 나가지는 못했다. 광해군 때에는 왕족은 물론 良翁 李瀾, 桐溪 鄭蘊 같은 문인들이 제주에 유배를 왔고, 인조반정으로 바로 조정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인조반정 이후 제주도 지식인들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관리로서 본토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인적교류는 자연스럽게 제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이원진_탐라지』의 제 판본

『탐라지』는 제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책이 확인된다. 하지만 모두 『이원진_탐라지』는 아니다. 『이원진_탐라지』로 분류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판인 것은 모두 『이원진_탐라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진_탐라지』는 이원진 제주목사 재임시기인 1653년 가을에 완성하여 판각하였다. 현시점에서 冊版庫가 전소된 기록은 있다. 따라서 목판본 『탐라지』는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로 판단된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둘째, ‘건치연혁을 어디까지 기록했는가’이다. 『이원진_탐라지』는 “예종 원년(1469) 기축에 다시 목사를 두어 병마수군절제사를 겸하게 하고, 판관이 절제도위·감목관을 겸하게 하였다.”¹⁷⁾까지 되어 있다. 따라서 건치연혁이 예종 원년까지라면

17) 『李元鎮_耽羅誌』, 「健治沿革」, “睿宗元年己丑, 復置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 以判官兼節制都尉監牧官.”

일단 『이원진_탐라지』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제주목사에 대한 기록 역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된다. 이원진은 효종 대 부임했는데, 인조 때 부임했던 閔機(1568~1641)까지 소개되었다. 모두 소개한 것도 아니다. 名宦의 항목으로 뛰어난 목사와 관관을 선택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원진 이후에 작성되었다면, 이원진은 목사 명단에 들어가게 된다.

넷째, 『남사록』 또는 『남명소승』의 인용여부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책이 문헌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원진_탐라지』로 보기 힘들다. 실제로 숙종 대 제주관련 문헌부터는 두 문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이원진_탐라지』에는 따로 서문이 없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申纘의 跋文이 있다. 이 발문 역시 『이원진_탐라지』로 판단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된다.

위의 기준으로 확인되는 『이원진_탐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주요 『이원진_탐라지』의 판본

형태	소장처 및 서지사항	비고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798-1	濟州島 朝天里 金支鎬 「瀛州抱橘歌」 없음.
	국립중앙도서관 BA2749-1	瀛州抱橘歌
	제주국립박물관 제주시 12	瀛州抱橘歌 心齋 金錫翼 附記
필사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6BB-0042	李元鎮 撰 高弘進 監校
	충남대학교 도서관 『耽羅誌』. 乾, 坤	李太湖 撰
	건국대학교상허기념도서관 고915.199-탐831 ㄴ	平城後人申纘謹跋
필사본	국학진흥원 『耽羅志略』	金聖鐸 附記, 金樂行 跋文

먼저 『목판본_탐라지』는 위의 소장처 외에도 한국학 중앙연구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도서관등 많은 곳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본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이원진_탐라지』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서울대 규장각본은 제주 조천리에 살았던 金支鎬가 소장했던 것이다. 金支鎬는 구한말 조천에 세거했던 김해김씨의 일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은 물론 김형식·김명식 형제와 같이 근대 제주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었다. 이 집안은 조선말기~일제강점기 제주를 대표하는 집안이다. 이 책에는 「瀛州抱橘歌」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제주국립박물관본에는 「瀛州抱橘歌」가 있다. 이 시 역시 판각되어있고, 서두에 있다. 제주박물관본은 구한말 제주의 대표적인 지식인 心齋 金錫翼의 소장본이었고, 심재의 附記가 있다. 심재 김석익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지난 孝宗 癸巳年(1653)에 『耽羅志』가 완성되었다. 바로 牧使 李元鎭이 편찬한 책이다. 李公은 이 지방이 문헌이 고증할 수 없어 옛 일을 따라 찾아가며 邑誌를 만들었고, 제주 사람 高弘進에게 監校하고 출판하게 하였다. 실로 남쪽지방에서 처음 있는 문헌이었고, 世敎에 관련된 것 역시 크다. 하지만 이 책은 사이 사이에 『輿誌』를 근거로 하였지만, 모두 수집하지 못하여 실상과 어긋나고 잘못된 탄식이 없지 않았다. 대개 당시에는 기록이 완비되지 않았고, 한 두 사람의 견문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흠집 하나로 모든 구슬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책은 中世의 활자본이다. 책판은 오래되었고 글자는 마멸되어 읽을 수 없는 것이 과반이어서 탄식할 뿐이다. 내가 40여년 전에 판본 하나를 얻었는데, 그을린 종이 색에 인쇄한 흔적이 분명하였고, 한글자도 어긋나지 않았다. 또 책 끝에 申纘의 발문이 있어서 최초의 인본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己丑年 겨울 心齋 迂人 金錫翼이 瓊嬾室에서 적다.¹⁸⁾

인용문은 1949년의 기록이다. 글은 김석익이 일본에 있었을 때에 작성되었다. 인용문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첫 문헌”이라는 점이다. 이는 심재 김석익의 관점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주에 대한 기록은 『이원진_탐라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이다.

18) 『국립제주박물관_탐라지』, “粵在孝宗癸巳, 耽羅志成, 卽牧使李公元鎭所編也. 李公以此方文獻無徵, 爲之追繹故事, 修述邑誌, 令州人高弘進監校鑄梓, 實南方創有之文籍, 而抑有關於世敎者, 亦大矣. 然其爲書也, 間以輿誌爲據, 而蒐採未盡, 不無闕誤爽實之嘆. 蓋當時載籍未備, 有非一二人聞見精力之所及, 則固不可以一疵之瑕, 而拋棄全璧也, 明矣. 此爲中世印本, 而板久字刊, 不可讀者, 過半, 爲之可慨也. 余於四十年前, 得見一本, 紙毛色煤, 而印跡明皙, 一字不舛. 且卷末有申纘跋文, 乃知最初印本也, 今不知落在何邊. 己丑冬心齋迂人, 金錫翼, 書於瓊嬾室. 心齋.”

둘째, 高弘進의 존재이다. 고흥진은 제주에 유배왔던 艮翁 李灑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과거에도 합격한 인물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고흥진에 관한 많은 전설도 남아 있다. 이원진이 고흥진에게 점검하여 출판하게 했다는 것은 당시 제주지식인들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이원진_탐라지』에 오류를 지적한 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이원진_탐라지』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다. 오류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원진_탐라지』 이후로 많은 『탐라지』가 다시 작성되었고, 김석익 역시 『탐라지』의 이름으로 저술한 바 있다. 이는 새로운 사실 등을 기록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넷째, 김석익은 “활자본”·“그을린 종이”·“신찬의 발문”을 기준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최초 인본”으로 판단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김석익의 판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먼저 맞은 이유는 그가 소장했던 『목판본_탐라지』가 『이원진_탐라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진_탐라지』의 木板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公廨: 冊版庫는 정사년(1677) 실화로 모든 책판이 다 타버렸다고 한다.¹⁹⁾

冊版庫: …… 耽羅誌 …… 갑진년 향교가 불에 탔을 때, 대부분 불이 탔는데, 남은 것은 史略 …… 이다.²⁰⁾

耽羅誌: 본조의 제주목사 李翊漢이 지었다. 예전에 탐라의 기록이 있었는데, 누구 손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소홀하고 근거가 없었다. 翊漢이 徐居正의 『輿地勝覽』과 金淨의 「濟州風土記」 등 여러 책을 참고하여 교정하고 보태었다. 하지만 항목이 번다하고 의례도 잡다한 것을 면치 못하였다.²¹⁾

19) 『南槎日錄』, “公廨. 冊版庫, 丁巳, 失火時, 諸冊版, 盡燒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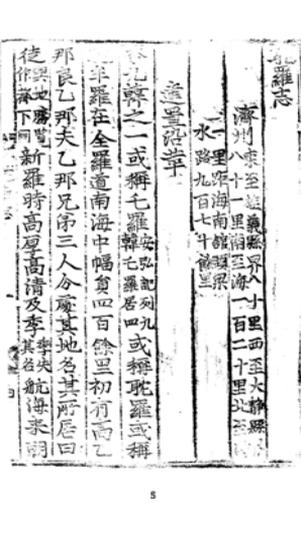
20) 『윤시동_탐라지』 111면. “冊版庫. …… 耽羅誌 …… 甲辰聖廟火變時, 多被燒盡者, 今見存者, 史略 ……”

21) 『鏤板考』, 史部, 掌故類. “本朝濟州牧使李翊漢撰. 舊有耽羅記, 不知出於誰手 頗疎(牛角)難於考據. 翊漢取徐居正輿地勝覽·金淨濟州風土記諸書, 而訂補之. 然門目頗繁, 義例仍未免蕪雜也. 耽羅志一卷, 濟州牧藏印紙二牒一片.”

참고: …… 耽羅誌 …… 여러 판본은 태반이 찢고 깨졌고, 또 잃어버린 것이 많다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적다.²²⁾

인용문은 李增의 『南槎日錄』, 『尹著東_耽羅誌』, 규장각에 소장된 『鏤板考』,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의 일부이다. 李增은 숙종6년(1679)에 어사로 제주에 왔었다. 윤시동은 영조 때에 제주목사로 왔었다. 『鏤板考』는 徐有渠 등이 정조의 명으로, 당시에 있던 서지와 판목에 관한 목록을 정리한 책이다. 李源祚는 헌종 7년(1841)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표 6〉 『목판본_탐라지』 비교

목판본 첫장 (규장각)	목판본 첫장 (국립중앙)	영주포굴가 (국립중앙)
		

『남사일록』의 정사년은 숙종3년(1677)이다. 이때 모든 책판이 다 뒀다고 하였다. 『윤시동_탐라지』의 책판고 기록에서 보이는 갑진년은 경종4년(1724)인데, 이때 문묘가 타면서²³⁾ 책판도 뒀다고 하였다. 『이원진_탐라지』 목판이 이 두 화재사건을 피해

22) 『耽羅誌草本』. 「倉庫」. 「冊版庫. 耽羅誌 …… 諸板太平朽刊, 又多闕失, 可印者少」.

23) 『제주삼읍교육사료집』(2003), 103면.

가지 못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鏤板考』의 ‘李翊漢’은 “목판, 『輿地勝覽』, 金淨의 『濟州風土記』”의 근거문헌으로 보면, ‘李元鎮’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이 오류는 『임원경제지』에서도 확인된다. 이원조의 기록에서 『이원진_탐라지』 책판이 많이 닳아졌음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원조 목사 부임 이전에 『이원진_탐라지』가 다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확인되는 목판본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심재 김석익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瀛州抱橋歌」 때문이다. 「瀛州抱橋歌」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1월 초 4일, 일 때문에 마침 나갔다가 동현에 들어와 앉으니, 幕府에서 하얀 색을 써서 바친 물건이 있었다. 살펴보니 흰 꿩이었다. 물어보니 旌義縣監 李鎮元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잡았고, 희귀한 물건이어서 사람을 시켜 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참신한 의견에 감탄하고, 縣監의 뜻을 소중히 여겼으며, 후세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노래하여 시를 지었다.²⁴⁾

旌義縣監 金鎮元에 대해서는 『순조실록』 34년(1834)에 보이며, 이때 제주목사는 朴長復이다. 흰 꿩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정치의 상징이었다.²⁵⁾ 박장복은 흰 꿩을 받고, 제주의 정치가 평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서로움을 노래하며 「瀛州抱橋歌」을 지었다. 박장복 목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따로 목판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재 김석익이 소장하고 있던 것은 내용은 『이원진_탐라지』가 맞지만, 적어도 이원진 목사때 판각했던 초간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심재 김석익이 소장했던 것은 중간본일까?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중간본으로 판단된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목판본_탐라지』에서 「瀛州抱橋歌」의 유무를 빼고는, 특별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瀛州抱橋歌」가 없는 것은 초간본, 있는 것은 중간본으로 볼 수 있다. 중간본을 만들었다면 박장복 목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박장복 후에 부임했던 이원조는 탐라지 판본을 확인했기 때문이

24) 「瀛州抱橋歌」, “十一月初四, 適因事出坐東軒, 有自幕府, 抱一白色以獻. 視之, 白雉也. 問之, 則旌義縣監李鎮元, 自州下還宮, 路遇獲之, 訝其稀異, 使幕替納云. 余既嘆其創見, 又重縣監之意, 不可使後人不知. 遂歌而爲之詩.”

25) 『尙書大傳』 권4. “周公居攝六年, 制禮作樂, 天下和平. 越裳以三象重譯而獻白雉.”

다. 그렇다면 초간본이 화재로 소실된 후, 박장복 목사 때에 탐라지를 중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주에서 중간된 경우도 확인된다.²⁶⁾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중간을 하면서 「瀛州抱橋歌」를 추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치연혁등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의문사항이다.

『목판본_탐라지』에서 확인되는 제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진_탐라지』 책판이 초간본과 중간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인본은 분명 『이원진_탐라지』이다. 이때 얼마 정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판본이 불탄 후에 순조시기 박장복 목사 때에 「瀛州抱橋歌」를 더해 중간본을 찍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원진_탐라지』 목판본을 다시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들어서면 제주에 관련한 많은 책들이 확인되지만, 그때까지도 『이원진_탐라지』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진_탐라지』 필사본은 3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사본에는 모두 저자인 李元鎭이나 監校한 高弘進 또는 申纘의 발문이 확인된다. 이는 모두 『이원진_탐라지』임을 말해주는 정보들이다. 이 역시 제주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원진_탐라지』를 읽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원진_탐라지』을 초록한 형태인 『耽羅志略』²⁷⁾도 주목되는 저술이다.

세상에서 漢拏山을 瀛洲山이라고 칭한다. 旌義縣 북쪽 5리에 따로 瀛洲山이 있으니, 기이하다. 耽羅는 서울에서 水陸 2000여리의 거리이고 큰 바다가 가로막고 사나운 오랑캐 풍속이 있다. 본 조정을 섬긴지 300년인데, 완고히 저항한 적이 없다. 列聖의 교화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주의 朝貢川이 있어 역시 기이하다. 朝天館은 그저 역지로 이름한 것일 뿐이니, 朝貢川이 천자의 명을

26) 이처럼 제주 간본의 초간본이 불탔지만, 중간한 경우로는 『당시절구』(개인A소장본 및 아단문고소장본, 개인B소장본)가 있다. 이는 본고를 심사받으면서 익명의 심사자가 제보해주었다. 탐라지의 초간본과 중간본에 대한 견해도 심사자가 짚어주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7) 『탐라지략』은 현재 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의성김씨 제산종택의 유물이다. 연구를 위해 종손 金再玉 님이 흔쾌히 자료를 제공해주셨고, 중간에서 국학진흥원 金周富 님이 수고해주셨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漢拏山에는 巫峽이 있고, 제주 동쪽에는 長沙가 있다. 쫓겨난 신하와 유배객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기이하다. 제주 서쪽에 感恩·德川이 있고, 旌義縣 북쪽에는 感恩岳이 있는데, 지금 제주사람들의 마음은 이 하천과 이 오름의 이름으로 알 수 있다. 별도포에서 바람을 기다리며. 무오년 七夕 후 2일에 우연히 『탐라지』를 보고 하염없이 여기에 적는다.²⁸⁾

『耽羅志略』은 제주유배를 살았던, 齊山 金聖鐸의 저작이다. 『탐라지략』은 표지와 발문을 포함해서 13장의 분량이며, 필사본이다. 김성탁은 李玄逸의 伸冤疏를 올렸다가 제주 旌義縣에 유배되었는데, 제주유배가 끝나갈 때 별도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이원진_탐라지』를 보고 초록한 책이다.

위 글은 『탐라지략』 서두에 있고, 제산 김성탁이 메모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성탁은 제주에서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조선이 세워진 후, 제주가 조정에 마음을 다하는 지역임을 기술하였다. 유배인이지만 사대부로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가 초록한 『탐라지략』은 그야말로 간단하게 적었다. 그렇지만 「풍속」이나 방호소를 중심으로 한 변방시설은 제법 자세히 적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이원진_탐라지』의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김성탁의 『탐라지략』은 『이원진_탐라지』를 보고 초록한 셈이다. 김성탁의 아들 金樂行(1708-1766)은 아버지를 따라 제주 유배지에 같이 있었다. 김낙행은 후에 아버지의 『탐라지략』을 보고는 당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제주목사였던 金政(1政)과 希夏(希夏)를 회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耽羅誌略跋」²⁹⁾을 남기기도 한다.

28) 『耽羅志略』, “世稱漢拏, 爲瀛洲, 而旌義縣北五里, 又別有名瀛洲山者, 可異也. 耽羅, 去京師, 水陸二千餘里, 重溟隔閼, 獠俗彪悍, 而服事本朝三百年, 無有梗化者. 列聖之教, 覃被可以見矣, 而濟州有所謂朝貢川者, 亦異哉. 若朝天館, 則特強名之耳, 非如朝貢川之命於天也. 漢拏山有巫峽, 州東有長沙, 而逐臣遷客, 自古及今, 蓋相望也, 異哉. 州之西, 有感恩·德川, 旌義縣北, 有感恩岳, 今日之心, 是川是岳, 知之矣. 在別島候風, 戊午七夕後二日, 偶看耽羅志, 謾書于此.”

29) 『九思堂先生文集』, 「書耽羅志略跋」, “丁巳, 濟州牧使金公卒于官, 李大將森之從姪希夏代之. 與我家非有雅素者, 而存卹周救甚勤. 先人既出陸, 猶以書寄問. 後李官止水使, 不得壽云, 而吾不能往弔, 其身後事, 皆不可知, 殊負以德相報之義. 異日因京洛人, 問其子孫之有無. 如有之, 特修世誼, 至吾兄弟之後孫, 無忘此意, 可也. 壬午九月二日, 閱篋中故紙, 見耽羅志抄錄者, 追念往事, 不勝悲感,

〈표 7〉 『탐라지략』_국학진흥원_의성김씨기증유물



『이원진_탐라지』 필사본은 3종과 김성탁의 『탐라지략』은 목판본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원진_탐라지』가 제주를 알기위한 필수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목판본의 출현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면에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심은 제주에 관련한 저술로 이어지고, 이는 제주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鄭運經의 『耽羅見聞錄』 서문을 쓴 李萬維는 “이원진의 『탐라지』를 보완하는 자료”³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이원진_탐라지』가 제주정보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원진_탐라지』는 이후에 나오는 『탐라지』의 전형으로 자리하게 된다.

V. 나오며

지금까지 『이원진_탐라지』를 중심으로 형성과정과 제판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원진_탐라지』는 이원진 혼자서 저작물이 아니다. 이원진 이전에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었다. 『이원진_탐라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전 저술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爲之出涕。因識之如此。”

30) 鄭運經, 『耽羅見聞錄』, 「耽羅見聞錄序」, “然則道常之此書 足爲耽羅之一掌故無疑。如有誌輿圖者, 取此而採之, 以補李公之闕遺, 則始可爲耽羅之成書, 更無遺欠也。”

고흥진과 같은 제주지식인이 이 책에 직접 참여하여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진_탐라지』는 목판으로 만들어졌다. 책판은 모두 불타버렸지만, 이후 지속적인 필요성으로 중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瀛州抱樞歌」의 유무를 통해 초간본과 중간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필사본과 『탐라지략』을 통해 제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원진_탐라지』가 기준문헌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원진_탐라지』는 기존의 것을 수용함과 동시에 실증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당시의 기준문헌이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목판에 새겨 인쇄하여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후대에 나오는 제주에 관한 모든 정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진_탐라지』 이후 많은 『탐라지』가 확인된다. 조선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기까지 『탐라지』라는 저작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변화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관찬 지리지 및 개인저작물에서 제주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탐라지』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원진_탐라지』 이후에 제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이런 사항들이 제주지역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반사항이 하나씩 연구되고 정리되어, 제주학의 기반과 내용이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九思堂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22, 민족문화추진회, 2001
『記言』, 한국문집총간 98, 민족문화추진회, 2006
『鏤板考』,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白湖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23, 민족문화추진회, 1999
『世宗實錄地理志』, 한국고전번역원db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db
『純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db
『雲問集』, 維基文庫db
『霽山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06, 민족문화추진회, 2001
『淸陰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7, 민족문화추진회, 2006
『冲庵先生集』,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 1999
『耽羅事實』, 서울대학교 도서관
『耽羅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국립중앙도서관
_____, 제주국립박물관
_____,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_____, 충남대학교 도서관
_____,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_____,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5), 1989
『耽羅志略』, 국학진흥원
- 金尙憲, 『南槎錄』, 홍기표역, 제주문화원, 2008
金錫翼, 『心齋集1,2』, 김새미오 역, 제주우당도서관, 2018~2019
李元鎮, 『태호이원진의 태호시고』,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실학번역총서11, 2013
宋廷奎, 『海外聞見錄』, 김용태·김새미오 역, 휴머니스트, 2015
鄭運經, 『耽羅見聞錄』,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李源祚, 『耽羅誌草本』, 김찬흡 외 역, 제주교육박물관, 2007
李元鎮, 『耽羅誌』, 김찬흡 외 역, 푸른역사, 2002
李衡祥, 『南嶺博物』, 오창명·이상규 역, 푸른역사, 2009
李增, 『南槎日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 『고려사지리지역주』, 박종기 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의성김씨 제산종택』,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목록집 62, 2019
- 『제주삼읍교회사료집』, 김지홍·원창애 역, 제주문화원, 2003
- 『증보탐라지』, 김찬흡외 역, 제주문화원, 2005
- _____, 김영길 역, 제주문화원, 2016
- 『탐라문헌집』, 김계연 외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고영섭, 「경기도 이천 北嶽寺(映月庵)의 역사와 인물」, 韓國佛敎學 67, 한국불교학회, 2013
- 김경옥, 『金陵邑誌』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3
- 김남형, 「驪江世稿」 研究 I - 문헌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2, 한국학연구원, 2011
- 김문식, 「16~17세기 寒岡 鄭述의 地理志 편찬」,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 김민현,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의 서지학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4(제4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 김선경, 「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 다산과현대 8,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5
- 김순희, 「吳澧과 「咸州志」」, 서지학연구 29, 한국서지학회, 2004
- 김영진, 「새 발굴 驪州李氏 先世 문집·저술 고찰(1)-<太湖詩稿>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36, 온지학회, 2013
-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역사문화학회, 2020
- 김효정, 「太湖 李元鎭의 詩世界 考察」, 『한국민족문화』 73,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9,
- 나재록, 「16~17세기 사찬읍지를 통해 보는 지방(향촌)문화」, 『인문사회』 21,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학술원, 2019
-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가 기록류」, 『고인쇄문화』 8,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 마치다타카시, 「<민속>과 <폐습> 사이-제주도의 폐습론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역사민속학』 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 박인호, 「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판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 _____,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韓國史學史學報 30, 한국사학사학회, 2014
- _____,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6

- 박종기, 「조선시대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 48, 한국학연구소, 2017
- 박중배, 「읍지(邑誌)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무학(武學)」, 『교육사학연구』 26, 교육사학회, 2016
- 박 주, 「조선 후기 청도 『鰲山志』의 편찬과 효자·열녀」, 『한국사상과 문화』 7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 _____, 「조선시대 경남지역의 효자·효녀·효부-「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5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_____, 「조선 중기 丹城지역의 효자 열녀-『丹城誌』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판 『황석공소서』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제주판 『삼국지연의』 간년 고증」, 『포럼 그림과 책 2011 논문집(1)』, 화봉문고, 2011
- 소순규,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14
- 양보경, 김경란,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應用地理』 22,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2001
- 안장리,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都八景》과 『大明一統志』의 《京師八景》 비교」, 『역사민속학』 3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 우인수, 「1749년 蔚山邑誌 《鶴城志》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2
-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34, 한국서지학회, 2006
- 윤재환, 「新資料 『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鎭의 詩世界-資料 소개와 詩世界の 概略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的 形象化-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鎭·梅山 李夏鎭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이 욱,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124, 대구사학회, 2016
- 소순규,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165, 국학연구원, 2014
-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 이건식, 「黃胤錫의 1775년 全國 地理誌 編纂 凡例의 특징 분석-1775년 무렵 弘文館의 전국 지리지 편찬 關例의 復元 시도」, 『지명학』 14, 한국지명학회, 2008

『李元鎮_耽羅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 정대영,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
『규장각』 5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 최원석, 「咸州誌 편찬 및 구성의 역사지리적 특징」, 『문화역사지리』 27, 한국문화역사지리학
회, 2015
- 허경진·강혜중, 「『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A Study upon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Lee Won-Jin's *Tamraji*

Kim, Saemio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Lee Won-Jin's *Tamraji* by studying its formation process and its diverse copies. I looked into such geographical notes as *Koryosa*, *Sejongsilokjiriji*, and *Shinjungdonkukyeojiseungram*, this being published proceeding to Lee Won-Jin's *Tamraji*. In formality and contents, Lee Won-Jin's *Tamraji* was proved to be influenc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 precedent geographical manuscripts compiled by government.

When compared to *Shinjungdonkukyeojiseungram*, Lee Won-Jin's *Tamraji* has close links to it in formality. On the other hand, it covers informations that are much richer and more detailed. I believe that such style is made possible by his way of doing research that is practical and evidence-based. Particularly, he collected more detailed and precise information through intellectual exchange with Ko Hong-Chin, a Jeju Island's intellectual, which enables *Tamraji* to be a reference literature for those times.

Lee Won-Jin's *Tamraji* was made in a woodcut, which shows that a woodcut copy was safely transferred all the way to the latter period of Chosun even in the midst of a bookstore and a Confucius shrine being flamed out. Also, it was identified that printing woodcuts were added for publication when necessary, which was confirmed with the additional woodcut of *youngjupogulga* in Lee Won-Jin's *Tamraji*.

It is presumed that much more information about Jeju became known to the people in the mainland of Korea through this woodcut copy of Lee Won-Jin's *Tamraji*. A strong interest in Jeju was also identified with a handwriting manuscript of Lee Won-Jin's *Tamraji* and *Tamrajiiryak*. This indicates that Lee Won-Jin's *Tamraji* was established as a reliable reference for Jeju.

Lee Won-Jin's *Tamraji* arose to be a representative reference for Jeju by Lee's manner accepting previous things and at the same approaching them with a positivist perspective. His effort did not stop here; he printed them in woodcut enabling people to access it.

『李元鎮_耽羅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The greatest value of Lee Won-Jin's *Tamraji* lies in being a prime source book for all the information about Jeju that came out later on.

Key Words : Jeju, *Sejongsilokjiriji*, *Shinjungdonkukyeojiseungram*, *Tamraji*, Lee Won-Jin, Geographical Notes

